

다시 읽는 『프랑켄슈타인』*

- “모던 프로메테우스”와 여성의 생명 창조력 -

손 현 주**

[국문초록]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 모던 프로메테우스』는 서구 문명이 산업사회로 접어들던 시기에 탄생한 현대의 악몽이다. 본 논문은 이 소설의 부제인 “모던 프로메테우스”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보려한다. 낭만주의 시인들은 프로메테우스를 사회적 정신적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불굴의 인간정신과 무한한 상상력의 상징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과연 셸리가 제시하는 모던 프로메테우스는 어떤 인물인가? 소설 속 프랑켄슈타인은 과학과 지성의 힘으로 실험실에서 인간을 창조하려 시도하고 반면에 여성 셸리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글쓰기, 그것도 과학적 지식에 입각한 공상과학소설을 시도한다. 전통적인 성 역할을 전복시킴으로써 셸리는 폴 영퀴스트가 지적했듯이, 자신의 어머니이자 여성운동의 선구자였던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여성권리 옹호”에 이은 “여성의 상상력 옹호”를 주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주제어: 프랑켄슈타인, 프로메테우스, 임신, 출산, 여성의 창조력, 자연, 과학
Frankenstein, Prometheus, pregnancy, birth, female creative power, nature, science

흥미롭게도 셸리는 프랑켄슈타인의 생명창조과정을 당시 부인과 의학서의 임신 출산에 대한 담론의 언어를 빌어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경험한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자전적 요소들과 함께 작품전체를 아우르는 셸리 특유의 언어를 지지해주는 틀을 구성한다. 본 논문은 18세기 당시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산부인과 관련 담론들을 살펴보고,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의 인간창조과정을 묘사하는데 이러한 언어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해 본다. 그리고 18세기 영국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의학적 담론을 바탕으로 당시 사회의 임신 출산에 관한 시각을 알아보고, 그러한 시각을 통해 프랑켄슈타인의 프로메테우스적 과업과 셸리 자신의 소설 창작과정을 함께 조명하여 셸리가 생각했던 “모던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그 악몽과 현실

프랑켄슈타인은 현대과학과 기계문명의 도래와 함께 우리의 의식에 깃든 악몽이다. 자연을 벗어나 인간의 힘으로 인조인간을 창조하는 것, 생명의 신비를 깨내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 그것은 인류의 오랜 욕망과 죄의식과 두려움이 뒤섞인 꿈이다. 메리 셸리가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1818년 소설이 처음 발간된 이후, 지난 이백년 동안 소설과 영화로, 만화와 게임 캐릭터로, 상업화된 이미지로 변이되고 소비되어 왔다. 괴물의 모습은 희화화되어 그 뿌리 깊은 공포의 본질은 희석되었지만 그는 이제 우리 의식 속에 하나의 신화로 자리 잡았다. 여성의 몸을 통한 출산을 배제하고, 과학의 힘으로 인간을 창조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인류의 지난한 꿈을 형상화한 것인 동시에 과학적 지식과 기술문명이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한 19세기 초의 사회상과 문화 인식과 무의식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프랑켄슈타인과 그가 창조한 괴물의 이야기는 문명

이 과학의 이름으로 자연을 길들이고 정복해 나가던 당시, 문명과 자연을 이항 대립 구조로 인식하던 과학적 지식의 왜곡된 적용이 낳을 수 있는 끔찍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류 문명의 어두운 이면의 불안을 단적으로 응축시켜 보여주는 어둠 속 악몽의 핵심이었다. 이후 이 이야기는 수많은 영화로 만들어졌고, 주인공의 이름인 프랑켄슈타인은 그가 창조한 괴물의 이름으로 오인되어 만화와 할로윈축제의 단골메뉴로 자리 잡는 등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유전공학, 생명공학, 기계공학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이제 여성의 출산을 배제한 인공적 생명창조가 더 이상 공상과학소설 속의 허구가 아닌 현실이 된 요즈음 프랑켄슈타인은 이제 악몽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기계문명으로 둘러싸인 도시 공간은 문명과 자연의 이분법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자연”스런 환경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로봇과 인공 장기가 생산되어 실생활에 이용되고 인공 수정을 넘어서, 인간 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오늘날, 이백년 전 탄생한 프랑켄슈타인은 무서운 악몽 속의 괴물이기 보다는 사이버 공간이나 영화 속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숙한 캐릭터가 되었다. 인류는 이미 인조인간의 창조가 가능해질 만큼 자연에 드리워진 신비의 베일을 벗겨버렸고, 문명과 자연의 경계자체가 희미해진 시대에 들어선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수사적 틀을 제공해 준다. 프랑켄슈타인이 그토록 알고자 갈망했던 생명창조의 비밀, 즉, 여성의 신체가 지닌 임신과 출산이라는 엄청난 마법같은 힘을 과학을 통해 파헤치고 정복하길 꿈꾸었던 초기 과학시대였던 19세기 초에 그려진 악몽의 한 자락을 통해 문명과 자연, 남성적 지성과 여성의 생식력, 과학의 힘과 임신 출산이라는 원초적 생명력의 대립과 그러한 이항 대립이 우리 문명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서로 충돌하고 전복되어 왔는지를 읽

어볼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초 18세 소녀가 쓴 이 소설은 신의 영역인 생명창조에 도전하는 젊은 과학자가 마침내 인조인간을 만드는데 성공하지만, 무서운 괴물의 모습을 한 인조인간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비극적 파국을 맞게 되는 이야기이다. 당시 유행하던 고딕소설풍의 공포물이자 과학의 힘과 그 위험성을 다루는 최초의 공상과학소설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신의 창조에 도전하는 무모한 인간의 야심과 몰락, 과학만능주의에 대한 경고, 억압된 인간 욕망의 표출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왔다. 인간을 창조한다는 원초적 우주적 테마는 이 작품의 부제, “모던 프로메테우스”로 부각된다.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벌로 카우카소스 산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영벌을 받았다는 신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프로메테우스는 흙을 빚어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이기도 하다. 신화에서 불은 신들의 것으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금단의 영역에 속한다. 신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온 생명창조에 도전하는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을 창조하고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처럼 인간이 지닌 한계에 도전하는 영웅적 인물이기도 하다.

19세기 초 낭만주의 시인들은 프로메테우스를 사회적 정신적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불굴의 인간정신과 무한한 상상력의 상징으로 내세웠고 그 필두에는 셸리의 남편이었던 시인 퍼시 셸리(Percy Bysshe Shelley)가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모던 프로메테우스”라는 부제는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에 비추어 볼 때 모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 창조를 시도하고, “생명의 불꽃”(spark of life)이라는 금단의 지식에 도전하는 과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¹⁾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정을 배제하고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인간을 창조하려는 시도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문명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그 핵심

1) Mary Wollstonecraft Shelley (1831),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p. xi

에 있는 “생명의 불꽃”, 즉 여성의 신체가 가진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명 창조의 신비를 알아내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자 하는 서구 문명의 남성적 욕망의 표출로 볼 수 있다. 프랑켄슈타인을 지도한 발드만 교수는 “자연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 자연의 은밀한 곳에서 자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밝혀내는 것”이 과학자의 임무라고 설파한다.²⁾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여성의 신체의 이미지를 빌어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앤 멜러(Anne K. Mellor)는 자연을 분석하고 통제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던 17-18세기 과학자들이, 임신과 출산을 통해 생명을 탄생시키는 여성 또한 자연과 같은 정복의 대상으로 보았던 시각을 드러내 준다고 지적한다.³⁾ 실제로 여성은 종종 자연과 동의어로 통용되기도 한다. 어머니 대자연, 혹은 어머니인 대지라는 표현은 자연과 여성, 특히 모성을 동일시하는 문화적 사고의 표현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듯이 여성 또한 정복해야 할 대상이며, 생명창조의 신비가 깃든 여성의 몸은 “생명의 불꽃”을 손에 넣으려는 18세기 이후 근대과학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이자 프로메테우스적 야망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대상이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프랑켄슈타인은 과연 “모던 프로메테우스”인가? 이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셸리가 프로메테우스를 어떤 인물로 상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메리 셸리의 남편인 퍼시 바이쉬 셸리는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인으로 그녀가 『프랑켄슈타인』을 집필하던 1816년에서 1818년 사이와 거의 같은 기간에 장편 극시 『해방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Unbound*)를 썼고, 이 작품은 1820년 영국에서 출판했다. 계몽주의의 이성중심주의에 대항하여 낭만주의 시인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신

2) Anne K. Mellor (1988), “Making a Monster,” *Mary Shelley: Her Life, Her Fiction, Her Monster*, p. 131.

3) Anne K. Mellor (1988), “Making a Monster,” *Mary Shelley: Her Life, Her Fiction, Her Monster*, p. 131.

적인 것으로 추앙하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자질로 보았다. 그 선봉에 퍼시 셸리가 서 있었다.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있어 프로메테우스는 제도와 권력에 저항하는 불굴의 인간 정신의 상징이었고, 퍼시 셸리에게 있어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제우스에 의해 바위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영겁의 벌을 받는 이 위대한 타이탄 죽은 실패한 프랑스 혁명의 신화적 등가물이기도 했다. 셸리가 “모던 프로메테우스”를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부제로 선정한 데는, 이 작품이 1818년 익명으로 출판되었던 당시 초판의 서문을 썼던 퍼시 셸리의 영향이 컸을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가 셸리가 퍼시 셸리의 낭만주의 예술관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베르쉴드 슈니하우드(Berthold Schoene-Harwood)는 『프랑켄슈타인』에서 셸리가 과학과 지식에 기초한 생명창조의 과정을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근거로 하여 여성의 임신 출산에 비유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흥미롭게도 셸리는 프랑켄슈타인의 생명창조과정을 당시 부인과 의학서의 임신 출산에 대한 담론의 언어를 빌어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셸리가 남녀 간의 성적 결합에 근거한 생식을 모든 창조행위의 모델로 삼고, 출산관련 용어들을 핵심 코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셸리가 특히 자신의 남편 “퍼시 셸리의 낭만적 상상력의 과잉을 비판하고 제어하려” 시도했다.⁴⁾ 셸리가 경험한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자전적 요소들은 작품전체를 아우르는 셸리 특유의 언어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슈니하우드는 이와 같은 언어의 사용이 “낭만주의의 상상력 담론에 여성적 창조이론을 도입하려는 메리 셸리의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보았다(144). 작품 속 남성 과학자가 과학적 지식을 통해 여성 대신 생명을 탄생시키려 시도하는 반면에, 여성작가 셸리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온 글쓰기를 통한 창조에 도전한다. 그리고 그 글이 남

4) Berthold Schoene-Harwood (2000). *Mary Shelley: Frankenstein*, pp. 144-145.

성의 생명창조에 대한 도전에 관한 것이라는 전복적인 성 역할의 역전은 이 소설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프랑켄슈타인의 도전과 작가 셸리 자신의 도전을 “모던 프로메테우스”라는 관점에서 읽어보고자 한다. 우선 18세기 당시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산부인과 관련 담론들을 살펴보고,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의 인간창조과정을 묘사하는데 이러한 언어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해 본다. 그리고 18세기 영국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의학적 담론을 바탕으로 당시 사회의 임신 출산에 관한 시각을 알아보고, 그러한 시각을 통해 프랑켄슈타인의 프로메테우스적 과업과 셸리 자신의 소설 창작과정을 함께 조명하여 셸리가 생각했던 “모던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2. 『프랑켄슈타인』, 생명창조, 임신 출산이야기

오랫동안 여성에게 허용된 유일한 삶의 형태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었다.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지만 이에 대한 기록과 담론은 주로 타자인 남성의 입장에서 기술되었고, 여성이 경험하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은 여성의 입장에서 그동안 침묵되어왔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거의 최초의 문학작품이라 할 수 있다.⁵⁾ 셸리 자신의 임신과 출산, 사산, 그리고 아이를 양육한 경험이 괴물의 창조와 성장, 그리고 괴물을 창조한 프랑켄슈타인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을 묘사하는 과정에

5) 이 작품보다 더 직접적으로 수태와 임신 출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작품으로 로렌스 스테인(Lasurence Sterne)의 『트리스트람 셴디』(Tristram Shandy)(1759-1767) 사이에 런던에서 연재됨)가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남성의 관점에서 기술된 것이다.

투사되어 나타난다. 이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한 1816년 6월 18세의 셸리는 이미 두 아이를 출산했고, 그중 첫 아이를 잃었고 둘째는 생후 6개월이었다. 더구나 어머니 울스톤크래프트가 셸리를 낳은 지 열흘 만에 산욕열로 사망하여 친모를 잃은 셸리에게 출산은 죽음의 공포와 맞물려 있는 사건이었다. 임신과 출산, 죽음은 젊은 셸리의 생애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이었다. 뮐러는 셸리가 묘사하는 괴물창조의 환상을 셸리 자신의 임신과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불안과 억제된 공포가 투사된 것으로 해석한다. 임신과 출산과 유아사망의 충격과 고통을 겪은 셸리의 불안과 공포가 고스란히 괴물탄생의 장면에서 치환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이가 죽지는 않을까? 기형이면 어떻게 하나? 낳은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등등 임신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불안과 공포가 실제 비극적 사건을 두 번이나 겪은 셸리에게는 좀 더 절실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임신과 출산의 강렬한 경험의 한 가운데서 탄생한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그러한 경험이 언어로 주제로 녹아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프랑켄슈타인』은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이 인간을 창조하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여 이 이야기는 무엇보다 “출산”에 관한 이야기이다. 1831년 판 서문에 따르면 이 책의 기원에 대해 셸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⁶⁾ 1816년 시인 바이런(Lord Byron)과 그의 주치의 폴리도리 박사(Dr. Polidori), 퍼시 셸리와 함께 제네바 근처에 머물던 비오는 어느 날 밤 그들은 유령이야기를 함께 읽고서 각자 무서운 이야기를 써보기로 한다. 간담을 서늘하게 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구상하던 셸리는 새벽녘에 백

6) 메리 셸리는 1818년 익명으로 『프랑켄슈타인』을 출판했다. 이 책의 서문은 남편인 퍼시 셸리가 썼고, 이후 1831년판을 다시 내면서 메리 셸리가 서문을 썼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작품의 본문 인용은 원칙적으로 1831년 판을 기준으로 한다.

일몽을 꾸게 된다.

“어떤 사악한 기술을 터득한 과학자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이 조립해 놓은 물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소름끼치는 귀신같은 남자가 큰 대자로 팔다리를 뻗고 누워있다. 이윽고 엔진이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생명이 불어넣어진 듯 남자는 불안정하면서도 생기 없이 버둥거린다.

이런 상상은 너무나 끔찍했다. 조물주의 놀라운 창조 원칙을 조롱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경악할 만한 파국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의 노력이 성공한다 해도, 과학자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만든 괴물을 보고 기겁하여 달아나게 될 것이다. 아마 그는 괴물을 내팽개친 채 자신이 직접 불어넣은 미약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길 간절히 바랄 것이다. 그리고 불안정한 생명을 부여받은 이 괴물이 죽음 앞에 무너져 영원히 가라앉길 기원할 것이다.”⁷⁾

셸리는 바이런과 폴리도리, 퍼시 셸리가 당시 이슈였던 갈바니즘(Galvanism)⁸⁾과 에라스무스 다윈(Erasmus Darwin)⁹⁾의 분류학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으며 간접적으로 이 같은 과학이론에 접하게 되었다고

7) Shelley (1831), p. xi. 저자 번역.

8) 루이지 알로이시오 갈바니(Luigi Aloisio Galvani, 1737-1798).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생리학자로 1780년 해부한 개구리의 다리가 해부도에 닿자 경련이 일어남을 보았다. 그는 그것이 생체전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동물조직이 이전까지는 경시되었던 내재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동물전기’라고 칭했으며, 동물전기가 금속 침으로 건드린 신경과 근육을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했다. 그는 1791년 『근육운동에 대한 전기의 효과에 대한 주석서』(De Viribus Electricitatis in Motu Musculari Commentarius)를 출판하여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바이런과 폴리도리, 퍼시 셸리는 이 이론에 대해 논의했고 듣고 있던 셸리는 이 이론에 기반하여 인조인간 창조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9) 에라스무스 다윈(Erasmus Darwin, 1731-1802). 찰스 다윈의 조부로 분류학을 창시했다. 그의 이론은 이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기초가 되었다.

말한다. 전기자극을 이용해 죽은 생명체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이탈리아 과학자 갈바니의 실험이야기는 분명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창조하는 “생명의 불꽃”의 아이디어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는 다방면의 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지던 시대로,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부인과 관련 의학서들이 대거 출판되었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165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조산술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남자 조산사들의 등장에 기인한다.¹⁰⁾ 남자 조산사들은 전통적인 여자 산파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선 많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점과 분만 시 후크(hooks), 겹자(crotchets), 추출기구(extractors), 크러치(crutches) 등의 외과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등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이러한 책들은 상당히 표준화된 패턴을 따르고 있는데, 해부학과 골상학에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대부분의 책들은 임신의 징후와 진단법, 임신부 특유의 질병에 대해 조언해 주고,

10) 17세기 산파였던 제인 샤프(Jane Sharp)는 다음과 같은 책들을 내놓았다. *The Midwives Book. Or the whole Art of Midwifery Discovered. Directing Childbearing Women how to behave themselves; In their Conception, Breeding, Bearing, and Nursing of Children.* 제인 샤프는 17세기 영국의 산파로 그녀의 책은 오늘날까지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과 출산, 성에 대해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제임스 기예모(James Guillemeau)의 *Childbirth; or The Happy Deliverie of Women, Wherein is set downe the Government of Women, In the Time: Of their Breeding childe: Of their Travaile, both Naturall, and Contrary to Nature: And Of their Lying in.* 등이 있다. *In the Time*의 2장은 다음과 같은 제목을 달고 있다. “What dyet and order a woman with child ought to keepe” 또 다른 장은 “how a woman must governe her self the nine months she goeth with child”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18세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책으로 꼽히는 *Aristotle's Compleat Master-Piece, In Three Parts: Displaying the Secrets of Nature in the Generation of Man* (1694?)에는 “How a woman should order herself that desires to conceive, and what she ought to do after conception,” “How child bearing women ought to govern themselves during the time of their pregnancy”와 같이 임신한 여성들의 행동거지에 대한 권고를 담은 내용이 주로 들어있다.

태아의 성별을 감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었다. 출산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조산원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출산 형태에 대해 삽화(도면)를 첨부하기도 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이런 책들의 삽화로 사용될 도판제작을 위해 화가와 판화가들에게 정교한 해부도를 의뢰하는 일도 빈번했다. 이들은 또한 출산 후 조리기간과 그 기간 동안 산후 산모와 신생아가 걸리기 쉬운 질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슈니하우드는 특히 이 책들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아기를 출산하고자 하는 임신부의 행동거지에 대한 규칙과 규율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¹¹⁾ 즉, 이러한 책들을 통해 임신부를 “통제”하고 “규제”하려 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행동거지는 윤리와 종교, 경제적 제약 등에 의해 규정지어진 반면, 임신부는 세심한 의학적 관찰과 지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런던의 외과의사였던 존 클라크(John Clarke)는 『임신과 분만에 관한 실용서』(*Practical Essays on the Management of Pregnancy and Labour*)를 출간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또한 셸리의 어머니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가 난산을 겪었을 때 초빙했던 의사로, 셸리 자신이 첫 아이를 출산할 때 도움을 요청했으나 분만 후 5분이 지나 도착했다고 한다. 임신부에 대한 이들 의학담론들은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 임부가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세심한 규율들은 대부분 고전적인 여섯 가지 “비자연적 요소”(non-naturals)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¹²⁾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산파술의 이론과 실제의 개괄』(*Outlines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Midwifery*)에서 “임신 중의 관리법(Management during Pregnancy)”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11) Schoene-Harwood (2000), p. 145.

12) 건강에 필요한 여섯 가지 요소로 공기, 육류와 술, 수면과 각성, 움직임과 휴식, 배설과 유지, 애착 등으로, 과하거나 지나치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믿어졌다.

있다. “유산을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엄격한 금주와 식사, 수면, 운동, 오락 등을 규칙적으로 즐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 “지나친 난방, 감정의 기복과 변비”는 피해야 하고, “충격을 받거나 걷거나 뛰다가 넘어지는 것, 사람에게 밀려 타박상을 입거나, 소란에 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다”라고 적고 있다.¹³⁾

임신 중 관리에 못지않게 중요시된 것이 수태과정이다. 앰브로즈 페어(Ambroise Pare)는 기형(괴물)이 생겨나는 원인이 수태되는 순간 여성의 눈에 들어온 이미지에서 기인한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의학 담론 전반에 널리 유통되던 것으로, 여성이 수태 시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받은 사물의 이미지나 환경적 특성이 태아에게 전해져 태아가 기형이 된다는 이론이다. 일례로 검은 피부의 에디오피아인 부모에게서 백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는 수태 시 침상에 누운 어머니가 흰 피부를 가진 안드로메다 그림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곰처럼 털로 뒤덮인 처녀아이는 그 어머니가 수태의 순간에 하필 침대 옆에 걸려 있었던 낙타가죽을 걸친 성 요한을 그린 그림을 쳐다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⁴⁾ 이처럼 수태의 순간에 잘못된 원인에 의해 생겨난 기형아를 당시의 의학서들에서 “괴물”(monster)이라 지칭한다. 해밀턴의 책은 “괴물”이라는 소제목 하에 태아의 기형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하나의 몸통에 머리가 둘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팔 다리가 두 쌍씩인 경우와 같이 극단적 기형에 대해 언급하며, 그러한 경우 의사는 반드시 절단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¹⁵⁾ 기형에 대한 이같은 의학적 소견은 셸리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괴물에 대한 당시 사회가 가졌을 편견과 그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수태와 임신과정에서 잘못되어 괴물을 낳게 된다는 당시의 시각으로

13) *ibid.* p. 146. 재인용.

14) *ibid.* p. 147.

15) Alexander Hamilltom (1792), *Outlines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Midwifery*, pp. 301-302.

본다면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인조인간이 괴물이 된 것은 여성의 수태와 임신에 해당하는 그 제작과정 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비록 자연적인 수태와 임신의 과정은 아니지만,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창조하기 위해 준비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여성의 수태 임신 출산 과정에 빗대어 보면, 그의 행동은 당시 의학서들이 임신부에게 금하는 사항들을 거의 모두 어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신부는 잘 자고 마음을 편히 해야 하는데, 프랑켄슈타인은 오히려 “한밤중에 쉬지 않고 숨막히는 열정으로 일에 전념”한다.¹⁶⁾ 임신부는 일상의 소란스러움과 과도한 자극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충격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즐거운 오락거리조차 그 정도가 규제되었다. 정신적 자극이 심한 활동을 피하고 소수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과 편안한 관계를 갖도록 권하는데, 프랑켄슈타인은 무덤과 도살장, 해부학실험실 등 끔찍한 장면들로 가득한 장소들을 골라 다니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내게 짜증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점점 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된다.¹⁷⁾ 해밀턴에 따르면 지나친 사고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혼자 있는 것”으로 “우울한 감정은 때로 임신기간에 생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⁸⁾ 이렇게 볼 때 프랑켄슈타인의 행동은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 임신부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두 어기고 있는 셈이 된다. 그 결과 “내[그]의 뺨은 연구에 지쳐 창백해지고, 내[그]의 몸은 실내에 갇혀서 메말라 갔다”.¹⁹⁾ “밤이면 밤마다 나는 천천히 퍼지는 열기에 짓눌렸고, 너무도 고통스러우리만치 불안해 졌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손은 떨려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나는 마치 상사병에 걸린 소녀처럼 전율과 열정이 건전한 자극과 절제된 야망이 있

16) Shelley (1831), p. 36.

17) *ibid.* p. 131.

18) Schoene-Harwood (2000), p. 146. 재인용.

19) Shelley (1831), p. 36.

어야 될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고 하소연 한다.²⁰⁾ 당시의 의학서들은 특히 격렬한 감정(passion)을 임신부가 피해야 할 가장 큰 위험 중의 하나로 꼽는다. 여성의 상상력은 위험한 것인데, 특히 임신부에게 더욱 위험하다고 여겨졌다. 임신상태는 정상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혐오감이나 욕망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 “신생아가 가지고 태어나는 모반이나 기형은 모체가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모체의 적절치 못한 환상과 상상의 불행한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이다.²¹⁾ 하지만 소설 속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했지만 “내 창조 작업이 완결된 후”에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한다. 임신부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이 건강한 아이 출산에 중요하다면, 이렇듯 흥분에 들뜨고 불안한 상황은 프랑켄슈타인의 창조 작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랑켄슈타인은 “겨울, 봄,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실제 인간의 임신 기간과 유사하게 약 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인조인간 창조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리고 임신한 11월의 어느 날 그는 괴물의 탄생을 보게 된다. “나는 그 생명체가 흐릿한 노란 눈을 뜨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경련하듯 사지가 꿈틀거렸다.”²²⁾ “비례가 맞도록 구성하여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도록 선별해서” 만든 창조물이 실제로 생명을 얻어 깨어났을 때,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끔찍한 모습을 한 것을 보고 극도의 혐오감을 느낀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창조한 생명체를 돌보기는커녕 방치한 채 달아나 버린다.²³⁾ 프랑켄슈타인의 이 같은 행동은 일반적으로 출산한 어머니가 아이를 보듬어 안고 젖을 먹이는 것

20) *ibid.* p. 38.

21) Schoene-Harwood (2000), p. 148.

22) Shelley (1831), p. 56.

23) *ibid.* p. 56.

과 극단적 대조를 보인다. 처음부터 남녀 간의 사랑과 어머니의 모성애를 배제한 생명의 창조는 앞서 인용한 서문에서 지적하듯 피조물에 “불완전한 생명”을 부여했고, 이는 불완전한 창조로 이어졌다. 사랑대신 지적 허영심과 공명심에 가득 차 있던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생명체를 창조하면, 피조물은 당연히 그에게 “감사(gratitude)”할 것이라 생각한다.²⁴⁾ 그는 섬세한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커다란 시신조각들을 조합하여 “키가 8피트정도 되고 그에 비례해서”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놓고는 정작 자신이 창조한 생명체가 “아름다울” 것으로 기대하는 것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²⁵⁾ 그는 처음부터 창조한 생명체와 공감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자 피조물이 죽기를 바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 “나는 이를 갈았다. 내 눈은 뜨겁게 충혈되었고, 내가 그토록 생각 없이 불어넣은 생명이 꺼지기를 갈구했다”.²⁶⁾ 흥측하게 만들어진 것은 괴물의 잘못이 아니라 생각 없이 만든 창조자 프랑켄슈타인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피조물의 끔찍한 모습에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온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러한 행운이 내게 찾아오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 적이 도망가 버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기쁨에 겨워 손뼉을 쳤다”.²⁷⁾ 그는 이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소름끼치는 손님”이자, “적”으로 인식한다. 그에게 있어 피조물의 존재는 자신의 눈에 띄지 않는 한 잊고 싶은 악몽일 뿐이며, 사라진 피조물이 어떤 형태로 살아갈지 여부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 그 흥측한 괴물이 사라져 버린 것에 기쁜 마음도 잠시, 프랑켄슈타

24) *ibid.* p. 49.

25) *ibid.* p. 49, 52.

26) *ibid.* p. 87.

27) *ibid.* pp. 59-60.

인은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충격으로 병상에 눕게 된다. 프랑켄슈타인의 이러한 상태는 어려운 난산 끝에 병석에 누운 산모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산모와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태어난 생명체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는 적개심과 분노이다. 프랑켄슈타인의 생명창조 당시의 의학담론에 비추어 보면 수태와 임신 중 산모가 피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도살장과 무덤, 해부학 실험실 등에서 받은 끔찍한 시각적 자극들을 수용한 결과 흉측한 모습의 괴물(기형아)을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슈니하워드의 주장처럼 셸리는 프랑켄슈타인과 그의 실패한 창조인 “괴물”의 탄생과정을 여성의 임신 출산의 과정에 빗대어 묘사함으로써 프로메테우스로 상징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신적인 힘과 자유 추구하는 낭만주의 상상력의 한계를 제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프랑켄슈타인, 악몽의 탄생

전설 속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창조했고 악명 높은 모던 프로메테우스로서의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창조해 냈다. 그리고 그들 둘 다 그 창조의 결과로 고통과 징벌을 받게 된다. 전설의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을 능멸한 벌을, 모던 프로메테우스는 자연을 능멸한 벌을. 프랑켄슈타인이 금단의 지식에 손을 댄 결과는 죽음이다. 그리고 이 죽음은 괴물을 수태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음을 프랑켄슈타인의 꿈에서 엿볼 수 있다. 프랑켄슈타인은 인조인간의 신체를 완성하고 지쳐 잠이 드는데, 그가 꾸는 꿈은 앞서 인용한 작가 셸리의 꿈처럼 자신이 만들어낼 불길한 창조물의 본질을 예시해 준다.

“나는 엘리자베스가 최상의 건강한 모습으로 잉골슈타트의 거리

를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그녀를 껴안았다. 그런데 그녀의 입술에 첫 입맞춤을 남겼을 때, 그녀의 입술은 죽음의 낡빛으로 변해버렸다. 그녀의 모습이 변하는 듯 하더니 내 팔은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몸은 수의로 덮여 있었고, 플란넬천 주름 사이로 시체에 찢는 구더기가 스멀거리는 것이 보였다.²⁸⁾

생명창조의 꿈이 실현되기 직전의 순간, 물리적 잉태와 임신의 과정을 비껴간 채 생명을 탄생시키기 직전의 순간에 프랑켄슈타인을 찾아온 꿈은 그의 프로젝트가 지닌 숨은 의미를 드러내 줄 단서가 된다. 제럴드 호글(Jerrold E. Hogle)은 이 꿈을 프랑켄슈타인이 죽은 어머니에 대해 지니고 있는 애착과 죽음의 공포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생기로 가득 찬 사랑하는 엘리자베스와의 포옹과 입맞춤은 죽음을 부르고, 품속의 엘리자베스는 죽은 어머니의 시신으로 변모한다. 이는 그가 신부가 될 엘리자베스와의 사랑을 통해 “자연”스런 생명을 창조하길 거부하고, 대신 죽음을 통해 죽은 시신을 되살려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회귀하고자 하는 숨은 열망을 드러내는 꿈이고 무덤에서 꺼내와 짜깁기한 시신에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을 창조하려는 시도의 저변에는 죽은 어머니를 되살려 내어 원초적 합일상태로 회귀하고자 하는 이디퍼스적 열망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욕망이 가려져 있는데 자연이 숨겨 놓은 금단의 지식인 여성의 생명창조 능력을 과학적 탐구를 통해 획득하려는 열망이 그것이다.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의 생명창조 능력을 과학의 힘으로 얻어내려는 시도가 잃어버린 모성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구와 맞물려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프랑켄슈타인의 꿈은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말하는 애브젝트(object)로 가득하다.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애브젝트는 주체(subject)

28) *ibid.* p. 53.

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 하지만 타자(object)는 아닌 어떤 것을 지칭한다. 시신, 배설물, 피, 오물, 끔찍한 살인 등 우리에게서 나왔지만 우리 자신의 일부로 인정할 수 없는 것, 자아에서 자아 밖으로 밀려나와 타자와의 경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자아도 타자도 아닌 그 경계에 위치한다. 시신과 배설물, 피 등은 우리 몸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과 상관 없이 혐오감을 주고 외면하고 싶게 만드는 우리가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인데, 어머니의 육체, 모성은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연상시키는 역설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모체로부터 분리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개체로 성립한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비로소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가 된다. 하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인락하고 개체의 불안이 존재하지 않는 탄생이전의 원초적 합일에 대한 욕망은 삶이 지속되는 한 떨쳐버릴 수 없는 지난한 삶의 조건이다. 원초적 어머니에게로의 회귀는 개체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이는 죽음이다. 여기서 다시 자궁과 무덤의 떨 수 없는 관계가 드러난다. 생명을 키우는 자궁(womb)과 죽어 돌아가는 대지의 자궁인 무덤(tomb)이라는 메타포이다. 하여 인간에게 있어 어머니는 애착과 혐오가 동시에 성립하는 대상이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프랑켄슈타인의 꿈은 생명의 창조와 죽음, 그리고 잃어버린 어머니에게로의 회귀라는 복잡한 욕망의 구조가 시각적으로 재구성되어 그가 추구하는 생명의 창조가 애초부터 죽음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크리스테바는 “여성의 시간”(Women’s Time)에서 임신을 “신체는 배로 증가하고, 자아와 타자가, 자연과 의식이, 육체성과 언어가 공존하는” 상태라고 묘사한다.²⁹⁾ 이는 전통적으로 통용되어온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항 대립이 공존하고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즉, 자연과 의식

29) Julia Kristeva, (1982), “Women’s Time,” *Feminist Theory: A Critique of Ideology*, p. 49.

(이성과 지식), 신체와 정신, 생명과 죽음의 대립이 무너지는 현상이다. 프랑켄슈타인의 생명창조 과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풀어보면, 괴물의 신체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프랑켄슈타인은 무덤을 뒤져 몰래 가져온 신체 부분들을 조합하여, 거기에 (완전하지 못하지만) 지식탐구의 결과로 얻어낸 “생명의 불꽃”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삶과 죽음, 남성성과 여성성, 자연과 인간의 인식이 함께 얽혀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경험하는 임신상태와 유사하고, 이는 이분법적 대립 항들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혼돈이자 탄생의 장이다. 자궁(womb)과 무덤(tomb)의 병치에서 드러나듯이 생명의 탄생은 죽음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는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는 장소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과 부패가 일어나는 장소로, 전자는 지상에 주어진 일정기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장소인 반면 후자는 영생을 준비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왔다. 션 핏츠패트릭(Sean Fitzpatrick)은 이와 같은 병렬적 유사성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역설적이게도 프랑켄슈타인이 생명창조를 위해 찾아든 곳은 죽음이 거하는 무덤이다. 한밤중에 어둠을 틈타 금지된 과학의 비술을 추구하여 부패되지 않은 시신을 찾아 묘지를 드나들고, 그렇게 얻은 시신 조각들을 조합하여 생명의 불꽃을 불어넣을 신체를 만들어 간다. 이 과정을 셸리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담론에 쓰이는 언어로 묘사함으로써, 여성의 자궁(womb) 대신 무덤(tomb)에서 생명을 키우는 병렬적 구조를 완성해 낸다. 또한 남성 주인공으로 하여금 여성대신 임신과 같은 생명 창조의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대립 항을 무너뜨린다. 사실 임신상태는 그 자체로서 이항대립에 대한 전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4.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무덤에서 찾아낸 재료로 불완전한 지식에 의거해 불완전하게 창조된 괴물은 흉측한 모습 때문에 인간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언어를 배우고 문자를 깨우쳐 책을 읽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선과 악의 분별을 알게 된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가를 추적한 끝에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의 실험에 대해 알게 되고 자신을 창조한 자를 찾아 나선다. 자신을 돌보아주고 인도해 줄 아버지와 같은 창조자를 기대했지만 프랑켄슈타인이 자기를 부정하고 배척하자 그는 복수를 맹세한다. 그는 프랑켄슈타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차례차례 죽이지만, 그의 살인 행위는 살인 자체에 있기보다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통해 프랑켄슈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추적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마치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비행을 일삼는 청소년처럼, 사랑받기를 포기한 괴물로서는 증오의 관심이라도 받고 싶은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켄슈타인』을 괴물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보면,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 채 인간사회에서 배척당하는 불행한 존재가, 자신의 힘만으로는 선하고 자부심을 가진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분노와 고독 속에서 어떻게 끔찍한 살인마로 변신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종종 페미니스트적 비평 관점에서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이 창조한 괴물을 버리고 달아나 버림으로써 제대로 된 부모노릇을 전혀 못해 그 결과 모습만 흉측한 괴물을 진짜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맥락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독해는 프랑켄슈타인은 전설 속의 프로메테우스와는 달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불, 생명의 불꽃을 가지고 놀다가 겁에 질려 도망가 버리는 함람미달의 영웅으로 보이게 한다. 괴물은 천신만고 끝에 자신을 창조한 프랑켄슈타인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절규한다. “난 결코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³⁰⁾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책임지

지 못하고 유기한 채, 마침내 찾아온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리고 외면하는 그를 괴물은 “창조자”라 부르며 “책임”을 다 해달라 요구한다. 셸리는 1816년 루소의 『에밀』을 읽었고 이 소설에서 루소의 주장처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괴물이 괴물이 된 것이 그가 타고난 기질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했고 인간이 그르쳐 악하게 만든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없이 “태어나 홀로 남겨진 아이는 괴물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³¹⁾ 비록 창조자에게서 버려지고 홀로 남겨졌지만, 드레이시(De Lacey) 가족들의 모습을 자신이 닮아야 할 이상으로 여기고 스스로 선과 악의 분별을 배우고, 어려움에 처한 드레이시 가족을 위해 남몰래 사냥을 하고 땀감을 마련해 주는 등 선행을 하는 괴물은 자만심과 지적 허영심으로 생명의 비밀을 추구하고 인조인간 창조에 나선 프랑켄슈타인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준다. 단지 흉측한 외모 때문에 인간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당한 괴물은 드레이시 가족들을 보며 독학으로 글을 깨우쳐 루소의 『에밀』, 『실낙원』, 『플루타르크 영웅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을 읽고 인간과 인간사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익힌다. 그는 자신이 “선한” 존재가 되면 흠모하는 드레이시 가족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그의 흉측한 모습을 본 그들은 그를 악마로 여기고 배척한다. 깊이 상처 입은 괴물은 자신을 만든 창조자를 찾아 나서고 마침내 프랑켄슈타인과 마주하게 된다. 괴물은 아버지로서 자신을 받아들여주길 기대했던 프랑켄슈타인에게서까지 존재를 거부당하고, 창조자조차 자신이 죽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 복수를 결심하고 “선한” 존재가 될 것을 포기한다. 낙원의 아담이 되어야 할 자신이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는 괴물의 언급은 밀턴의 『실

30) Shelley (1831), p. 95.

31) 셸리의 일기에 따르면 그녀는 1814년 클레어 클레몽의 소개로 『에밀』을 읽었다고 한다(Mellor 45, 재인용). *Mary Shelley's Journal*, ed. Frederick L. Jones, p. 72.

낙원』의 반항을 보여준다(95). 마치 작가 셸리가 의식적으로 『실낙원』의 사탄과 같이 자신의 운명에 맞서 저항하는 괴물을 프랑켄슈타인보다 더 낭만주의의 영웅적 프로메테우스 상에 근접한 인물로 그려내고 있는 듯이 보인다. 『실낙원』에서 사탄이 창조주를 거역하고 반기를 들었듯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자신을 창조한 프랑켄슈타인에 복수를 맹세한다.

저주받은 창조자여, 당신은 왜 당신조차 고개를 돌릴 끔찍한 괴물을 만들었는가? 신은 자비로이 자신의 형상을 본떠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지만 내 모습은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본으로 하여, 닮았으되 더욱 끔찍한 모습인 것을 ... 32)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창조에 따른 책임을 유기했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책임감 없이 그대로 버리고 달아나 버린 것이 괴물로 하여금 살인마가 되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다시말해 프랑켄슈타인은 생명을 “창조”하는데만 관심이 있었지, 태어난 생명을 돌보고 양육하는 부분을 고려에 넣지 않았다. 프랑켄슈타인은 여성의 생명 창조력, 모성의 특성을 “수태”와 “분만”에 한정시킴으로써 외양이 흉측하게 태어난 괴물을 내면까지 괴물이 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는 불완전한 창조자로 사탄처럼 자만심에 차서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한 죄로 몰락하게 된다. 흥미롭게도 프랑켄슈타인은 창조자이자 동시에 자연/신에 반항하여 생명창조라는 신비의 영역에 도전하는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자신이 만든 괴물과 닮아 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창조자의 잘못에 의해 흉측한 모습으로 태어난 결과 인간들에게서 공감과 사랑받기를 포기한 괴물은 자신과 같이 흉한 모습을 한 여자괴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어떤 인간도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을 터이니 자신과 같은 처지의 동반자를 만들어 줄

32) Shelley (1831), p. 125.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창조자로서 자신이 돌볼 책임이 있는 피조물인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괴물을 주장한다.

사람은 누구나 추한 것들을 혐오하게 마련이니 짐승보다 더 흉측한 나는 얼마나 혐오스럽겠소, 하지만, 그대 나의 창조자여, 당신은 자신 피조물인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지만, 나와 당신은 우리 중 하나가 죽어야만 풀어진 끈으로 묶여 있소.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오.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장난을 친단 말시오? 내게 대한 의무를 다하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은 물론 다른 인간들에 대해 내 할 일을 할 테니. 당신이 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순순히 인간들 곁을 떠나겠소. 그러나 거절한다면 당신 친구들의 피로 충만할 때까지 실컷 죽음을 탐닉할 것이오.³³⁾

괴물이 소망하는 것은 단지 그와 “공감해 줄” 수 있는 존재였고 “외롭게 사랑 없이 살아야 한다면 미움과 악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외친다.³⁴⁾ 하지만 이 마지막 희망조차 프랑켄슈타인이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든 여자괴물을 파기하면서 좌절된다. 괴물의 간절한 탄원과 영원히 인간세상을 등지겠다는 약속에 설득되어 동반자가 될 여자괴물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하고, 프랑켄슈타인은 이 과업을 위해 영국으로 떠난다. 영국 스코트랜드의 외딴 섬에서 남몰래 여자괴물 제작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은 3년 전 처음 인조인간을 만들 때의 열정은 사라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혐오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프랑켄슈타인은 “그 같은 오지에서, 정말 역겨운 일에 매달려 관심을 끝마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고독에 파묻혀 있다 보니 정신이 이상해”지고, “점점 초조해지고 신경질적이 되어 갔다”.³⁵⁾ 한 번의 실패 후에 그 같은 괴물을 이번에는 알고서 만든다

33) *ibid.* p. 95.

34) *ibid.* p. 140.

35) *ibid.* p. 157.

는 것은 더욱 끔찍한 일이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더 무서운 피의 복수를 하겠다는 괴물의 협박에 억지로 진행되는 작업이었다. 결국 프랑켄슈타인은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든 여자괴물을 파괴해 버리는데 그 핵심에는 여성의 생식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다. 여성의 생식능력을 과학적 지식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시도가 제대로 된 인간의 창조가 아닌 괴물을 낳았고,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죽여 자신의 시도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했지만 그의 능력 밖이었다. 그는 여자괴물이 탄생할 경우 그녀는 남자괴물보다 더 사악하고 믿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그들이 자녀를 갖게 되면 세상에 악의 씨가 퍼져 감당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두려워했다.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존재가 어떤 성격일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녀는 어찌면 자신의 배우자 보다 천 배 만 배 더 사악해서 살인과 참극을 즐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인간의 주변을 떠나 외딴 곳에 숨어 살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녀는 아니었다. [...] 그 악마가 바라는 한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고, 악마의 씨들이 지구에 번식한다면 인간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³⁶⁾

이는 자신이 만든 창조물에 대한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다.³⁷⁾ 자연을 정복하고 통제해야 할 타자로 보았던 당시 남성중심적 사고체계에서 자기 복제를 가능케 할 생식력을 지닌 여성괴물은 남성괴물보다 더욱 더 두렵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비춰졌을 것이다. 여자괴물에 대한 혐

36) *ibid.* pp. 158-159.

37) 이후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로 인조인간의 자기 복제나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을 통제하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수퍼맨>,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터미네이터>, <토탈 리콜>, <매트릭스> 등 수많은 영화들이 인간이 만든 기계, 인조인간, 인공지능 등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다루고 있다.

오는 여성성에 대한 부정적 관념들, 특히 모성에 대한 본질적 두려움이 투사되어 있다. 앞서 크리스테바가 지적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모체에 대해 가지는 이율배반적인 태도, 즉 모체에서 분리되기 이전의 합일상태를 갈망과 동시에 자아의 소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이다. 모체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 신체의 생식력에 그 근원을 두고 있고, 프랑켄슈타인의 인간창조의 시도는 이 생식력을 모체와 분리시켜 자연이 아닌 문명 속으로 가져오려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력을 지닌 여자 괴물의 창조는 자연의 통제할 수 없는 생식력을 왜곡된 형태로 재현하는 것이어서, 남자괴물의 탄생보다 더 본질적이고 프랑켄슈타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부도덕한” 일로 여겨졌다.³⁸⁾

프랑켄슈타인의 실패한 도전은 19세기 근대산업사회의 문턱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자연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프로메테우스적 인간의 비극을 그려낸다. 이 작품은 그 시작부터 광활한 북극해의 빙하를 배경으로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의 추격전을 등장시켜 코올리지(Samuel Talyer Coleridge)를 비롯한 셸리, 바이런, 키이츠(John Keats) 등 낭만주의 시인들의 상상력을 펼쳐 묘사하는 광대한 우주적 드라마를 연상시킨다. 모던 프로메테우스라는 부제에 걸맞게 셸리는 북극해와 알프스 고산봉우리의 빙하 등 인간세상과 멀리 떨어진 거칠고 신비스런 자연을 배경으로 이 신화적 이야기를 전개시킨다. 주목할 점은 당시 유행하던 고딕 공포소설류에 자주 등장하는 유령이나 흡혈귀, 되살아난 시신, 늑대인간, 마녀 등의 초자연적 괴물들과는 달리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역사상 그 전거가 없는 존재라는 점이다. 셸리는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프로메테우스의 신화처럼 항구히 인류문명의 집단적 기억에 아로새겨질 괴물의 원형을 창조해 내었다. 프랑켄슈타인의 신화는 어

38) *ibid.* p. 159.

머니인 자연과 이를 정복하고 문명의 경계를 넓혀가려는 근대 서구 문명의 첨병인 과학적 지식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했고, 이 이야기는 여성의 생식기능을 자연에서 떼어내어 문명으로 전유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그리고 그 실패가 처음부터 시도 자체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5. “모던 프로메테우스”

폴 영퀴스트(Paul Youngquist)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작가 셸리의 어머니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의 “여성권리옹호”에 대한 속편 격으로 “여성 상상력 옹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³⁹⁾ 울스턴 크래프트가 교육을 통해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고자 했던 반면에 셸리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인 출산을 통한 생식력을 창조성과 여성적 상상력과 결부시켰다. 울스턴크래프트가 남녀의 동등성을 추구했다면, 셸리는 남녀의 차이를 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그리고 여성적 특성을 여성적 상상력, 즉 여성적 프로메테우스의 특질로 제시한다. 프랑켄슈타인이 여성을 배제한 생명의 창조, 인간의 창조를 시도한 반면, 셸리는 여성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전까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글쓰기와 창작, 나아가 과학적 지식까지 동원하여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전무후무한 작품을 탄생시키는데 성공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류를 창조하고 불을 가져다주었던 것처럼, 셸리는 여성으로서 소설을 창작하고 상상력과 과학적 지식의 불꽃으로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볼 수 있다. 남자인 프랑켄슈타인이 여

39) Paul Youngquist (1991), “*Frankenstein: The Mother, the Daughter, and the Monster*,” *Philological Quarterly*, 70:3(Summer 1991), p. 339.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페미니즘의 대모 격으로 최초의 페미니스트 선언에 해당하는 “여성권리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1792)를 쓴 것으로 유명하다.

성의 몸을 배제한 생명의 창조를 시도한 반면에, 여성인 셸리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상상력에 의한 창조, 즉 글쓰기에 도전한다. 낭만주의 상상력 이론을 정립했던 퍼시 셸리가 찬양한 프로메테우스적인 창조력에 대한 여성적 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셸리는 자신이 쓴 작품을 자신이 낳은 아이에 비유했다.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것을 여성의 산고에, 그 결과 탄생한 작품을 “자식”에 비유하는 것은 플라톤에서부터 버지니아 울프에 이르기까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1931년 판 『프랑켄슈타인』의 서문 끝자락에 셸리는 “내 흉측한 자식”(my hideous progeny)을 또 다시 이렇게 세상에 내보낸다고 쓰고 있다.⁴⁰⁾

왜 그녀는 이 작품을 “흉측”하다고 불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앞서 언급했듯이 이 소설은 근대 이후 과학의 발전과 함께 태동한 인류문명의 내면의 불안을 형상화한 악몽이며,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그 전거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과학문명이 창조해낸 괴물의 원형이다. 지식과 과학기술의 오남용이 불러올 수 있는 재난과 비극에 대한 경고임과 동시에 미지의 지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상상력과 도전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불완전한 지식에 의한 불완전한 창조가 빚어낸 끔찍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흉측”하며, 그 끔찍한 이야기를 상상해 낸 그녀의 상상력이 또한 “흉측”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탄생시켰듯이 작가 셸리 또한 현실에서 잇단 임신과 출산, 유아 사망을 겪고, 무서운 이야기를 상상하려 애쓰던 와중에 백일몽의 비전으로 찾아온 환상의 장면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어 냈고, 18세의 젊은 여성 셸리에게 이 작업은 프랑켄슈타인의 실험만큼이나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이었을 것이다. 그 결과 탄생한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처음에는 익명으로 출판되었고, 13년이 지난 1831년에 비로소 메리 셸리

40) Shelley (1831), p. xii.

라는 작가의 본명을 달고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셸리에게 이 작품은 최초로 출판된 작품이었고,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흥측한 모습을 한 창조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성작가가 아닌 특히나 나이 어린 여성작가의 작품이어서 더욱 더 부정적 비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셸리는 이를 “흥측”한 것이라 부름으로써 미리 비판의 시선을 차단하려 했을 것이다. 자연의 생명력을 획득하려 했던 프랑켄슈타인은 불완전하게 창조된 괴물을 탄생시켰고, 마치 프랑켄슈타인이 시신조각들을 그러모아 괴물의 몸을 만들었듯이 작가 셸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이 둘은 닮아 있다. 따라서 “흥측”하다는 것은 창조의 결과물이 조화와 균형을 통한 아름다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불완전함과 더불어 아직 아무도 본 적이 없어 그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는 시선이 마주하게 되는 낯설음과 기괴함을 모두 내포하는 단어로 볼 수 있다. 당시로 보면 18세의 소녀가 이같은 이야기를 써서 출판했다는 사실은 인조인간이라는 낯선 개념만큼이나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셸리와 프랑켄슈타인은 둘 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과업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프로메테우스적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부제인 “모던 프로메테우스”는 작품 내의 프랑켄슈타인뿐만 아니라 작품을 쓴 셸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름일 것이다. 이들의 작업은 남성인 프랑켄슈타인이 생명을 낳는 역할을 하고 여성인 셸리가 남성이 독점하던 글쓰기, 그것도 새로운 분야인 공상과학분야의 글쓰기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전복적이다. 그리고 그들의 도전의 결과물이 둘 다 충격적이고 낯설기에 “흥측”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인간이 실험실에서 인간을 창조한다는 생각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고, 젊은 여성이 공상과학소설을 써서 출판한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 오늘날,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더 이상 “흥측”한 악몽의 주인공이 아니라 재미삼아 웃을 수 있는 인기

있는 할로윈 상품과 귀여운 만화 주인공으로 변모되었고,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흥측”한 글이 아니라 영문학 사상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과학에 기반을 둔 기계문명이 자연의 심연에 가려져 있는 생명의 불꽃을 획득하여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깃든 마법의 힘을 취하려 할 때 일어나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지점에서 탄생한 근대인의 악몽, 『프랑켄슈타인』은 이제 자연을 떠나 문명 속에 안주한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악몽이 아니게 된 것은, 우리들 자신이 프랑켄슈타인과 닮아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명창조의 비밀, 생명의 불꽃을 획득한 우리 인류는 우리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창조자체만이 아니라 창조에 수반하는 책임, 즉 창조한 생명을 돌보고 양육하는 모성의 특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프랑켄슈타인의 창조물이 “괴물”이 된 것은 모성이 지닌 특성 중, 잉태와 출산을 양육과 사랑에서 분리시킨 데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자연”의 생명창조력 전체에 대한 이해없이 문명과 과학의 힘으로 그 중 일부만을 떼어내어 이용하려 할 때 생겨날 수 있는 파괴적 결과에 대한 경종이며, 문명과 자연이 대립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자연에 순응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참고문헌

【논 저】

- Kristeva, Julia (1982). "Women's Time," *Feminist Theory: A Critique of Ideology*, ed. Nannerl O. Keohane, Michelle W. Rosaldo, and Barbara C. Gelp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llor, Anne K. (1988). "Making a Monster," *Mary Shelley: Her Life, Her Fiction, Her Monster*, New York: Methuen. 38-51.
- Moncrief, Kathryn M. and Kathryn R. McPherson (2007). eds. *Performing Maternity in Early Modern England*, Aldershot, England: Burlington.
- Schoene-Harwood, Berthold (2000). *Mary Shelley: Frankenstei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helley, Mary Wollstonecraft (1831).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London: Colburn and Bentley. Reprinted by Signet Classic,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83.
- _____(1818).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London: Lakington, Hughes, Harding, Mayor and Jones Reprinted, edited by James Rieger, New York: Bobbs-Merrill, 1974.
- Youngquist, Paul (1991). "Frankenstein: The Mother, the Daughter, and the Monster," *Philological Quarterly*, 70:3(Summer 1991), 339-59.
- Waxman, Barbara Frey (1987). "Victor Frankenstein's Romantic Fate: The Tragedy of the Promethean Overreacher as Woman," *Langauge and Literature*, 23:1(Winter 1987), 14-26.
- Fitzpatrick, Sean. "Frankenstein: Prometheus Mythic & Modern," *The Imaginative Conservative*, <http://www.theimaginativeconservative.org/2013/05/frankenstein-prometheus-mythic-modern.html> Oct. 25. 2013.
- Hamilltom, Alexander (1792). *Outlines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Midwifery*, Open Knowledge Commons,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Online Archive, <https://archive.org/details/2556012R.nlm.nih.gov> Oct. 25. 2013.

Hogle, Jerrold E. "An Introduction," *Frankenstein's Dream*, Romantic Circles Praxis Series. <http://www.rc.umd.edu/praxis/frankenstein/hogle/hogle.html> Oct. 25, 2013.

원고 접수일: 2013년 10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3년 11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2월 3일

ABSTRACT

Reading *Frankenstein* in terms of “Modern Prometheus”
and the Female Creative Power

Sohn, Heonjoo*

Mary Shelley’s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is a depiction of a haunting nightmare of Western civilization since the dawn of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This paper will be reading the novel, focused on its subtitle, “The Modern Prometheus.”

Invoking the myth of Prometheus who was taken for the symbol for the unvanquished human willpower and the overreaching pursuit beyond the human limitations by Romantic poets, Shelley asks us what the Modern Prometheus should be. By assigning to a man the job of creating life with the supreme knowledge while to herself that of giving birth to a book instead of a child, Shelley subverts the established gender roles. As a result Victor Frankenstein ended up creating a monstrous creature who eventually destroyed its creator and itself, while Shelley succeeded in writing the novel, *Frankenstein*, which Paul Youngquist calls “a Vindication to the Imagination of Women,” a sequel to her mother, Mary Wollstonecraft’s “The Vindication to the Right of Women.”

*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ovel is about giving birth, which is a power unique to the woman and the core of nature's secret and the goal of Frankenstein's aspiration. In this nightmarish story, Shelley tries to demolish and deconstruct the binary oppositions between masculine and feminine, life and death, and civilization and nature. The birth of the monster is the first step to our recognition of the problems involving the exploitation of the nature in the name of science and civilization.

